

漢語 中古音의 齒音 小考 — 『東國正韻』·『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를 통해

김서영* · 안영실** · 김민경***

【목 차】

- | | |
|-------------------------|--------------------------|
| 1. 서론 | 7) 從母(齒頭音) |
| 2. 본론 | 8) 崇母(正齒 二等), 船母(正齒 三等) |
| 1) 精母(齒頭音) | 9) 心母(齒頭音) |
| 2) 莊母(正齒 二等), 章母(正齒 三等) | 10) 生母(正齒 二等), 書母(正齒 三等) |
| 3) 知母(舌上音) | 11) 邪母(齒頭音) |
| 4) 淸母(齒頭音) | 12) 禪母(正齒 三等) |
| 5) 初母(正齒 二等), 昌母(正齒 三等) | 3. 결론 |
| 6) 徹母(舌上音) | |

【초록】

漢語 中古音의 聲母의 조음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東國正韻』(1447)과 『訓蒙字會』(1527)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漢語 中古音을 음소 문자로 표기한 최초의 문자는 파스와 문자이지만, 파스와 문자는 死語가 되어 음소의 변화 및 후대의 계승 양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반면, 『東國正韻』 한자음은 漢語 中古音과 시기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일률적으로 訓民正音으로 표기했고,¹⁾ 全淸·次淸·全濁·次濁 역시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²⁾ 『訓蒙字會』

* 주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pionas2shrek@naver.com)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hideminori@gmail.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alsrud233@hotmail.com)

1) 『東國正韻』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양성운(/-m/, /-n/, /-ŋ/), 입성운(/-p/, /-t/, /-k/), 음성운(/-i/, /-u/)을 모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2)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ㄷㅂㅅㅈ爲全淸, ㅋㅌㅍㅊㅊ爲次淸, ㄱㄷㅂㅅㅈㅊ爲全濁, ㅇㄴㄹ

』는 우리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東國正韻』 한자음의 표기가 『訓蒙字會』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필 경우, 『東國正韻』의 편찬자가 분석한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漢語 中古音의 齒音을 고찰 하면서, 淸音의 무성 마찰음 /s/와 全濁의 유성 마찰음 /z/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漢語 中古音의 全濁 齒音은 /z/로 추정되는데, 『東國正韻』 편찬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성격에 대해 異論이 있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訓蒙字會』의 한자음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東國正韻』은 표기에서 우리 한자음을 바탕으로 漢語 中古音 四聲七音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본고에서의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당시 우리 현실 한자음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東國正韻』의 한자음과 면밀히 고찰해 볼 때,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키워드】 漢語 中古音, 『東國正韻』, 『訓蒙字會』, 『四聲通解』, 『全韻玉篇』

1. 서론

본고에서는 『東國正韻』에서 우리 한자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濁音을 各自並書로 표기한 목적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東國正韻』과 『訓蒙字會』 齒音에서의 표기를 비교하여,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의 조음 방법에 관해 새로운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齒音에서 ‘ㅅ’과 ‘ㅈ’이 각각 유성 마찰음(혹은 무성 마찰음)과 무성 마찰음의 관계로, 『東國正韻』에서 ‘ㅅ’을 初聲으로 하는 한자음이 『訓蒙字會』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漢語 中古音³⁾의 齒音이 『中原音韻』(1324)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도 함께 비교하여, 『訓蒙字會』에서 全濁字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중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우리 한자음을 있는 그대로 표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東國正韻』 23字母는 漢語 中古音 36字母와 비교했을 때, 重唇·輕唇·舌頭·舌上·齒頭·正齒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中古 漢語 36字母의 牙音·舌音·唇音·齒音·喉音의 字母 및 『廣韻』의 41聲類와도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訓民正音의 기본 17字母에서 全濁字를 표기하기 위한 ‘ㄱ, ㄷ, ㅁ, ㅂ, ㅅ, ㅈ’의 各自並書⁴⁾ 6字를 더하면,

○ ㄱ △ 爲不淸不濁.

3) 본고에서는 『廣韻』의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삼았다.

곧 『東國正韻』 23字母가 되는데, 『廣韻』 41聲類와 달리 『東國正韻』에서는 重唇·輕唇·舌頭·舌上·齒頭·正齒를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한자음의 淸·濁音에 관해서는 各自並書를 창제하면서까지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序文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한자음에서는 全濁의 조음 방법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全濁 표기를 하고 있는 목적에 관해서는 기존의 학설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成宗(1457-1494)이후, 漢語 中古音의 全濁 및 운미의 표기는 사라지게 되고 점차 현실 한자음 표기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한글 字母가 수록된 『訓蒙字會』는 우리 한자음 표기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서적이라 평가받는다.

各自並書의 사용과 관련해서 有聲音說, 硬音說, 重子音說⁵⁾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齒音을 중심으로 『廣韻』 41聲類, 『東國正韻』의 23字母, 『訓蒙字會』의 字母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또한 『中原音韻』과 중국 한자음을 轉寫한 『洪武正韻譯訓』(1455)의 음계를 따르면서 입성 소실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1517) 齒音의 표기와도 비교·고찰하여, 淸·濁音의 조음 방식 특징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淸音이 무성음이고 濁音이 유성음이라면, 淸·濁音을 대비할 경우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東國正韻』의 ‘ㅅ’이 『訓蒙字會』에서 ‘ㅈ’으로 발음되고, 『月印釋譜』(1459) 序의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의 ‘ㅅ’의 사용이 무성 마찰음이라는 것에 관해 異見이 없으므로, 만약 『東國正韻』에서 ‘ㅅ’이 『訓蒙字會』에서 모두 ‘ㅈ’으로 실현된다면 全濁字는 곧 유성음이라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만약 『東國正韻』에서의 淸·濁音이 漢語의 近代音 표기를

4) 各自並書의 음가는 한동안 학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수희(1971), 오정란(1988), 박창원(1990) 등에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즉 各自並書 음가에 대한 학설은 크게 有聲音說과 硬音說로 나뉜다. 여기서 有聲音說은 전탁음이 중국어에 있어서 유성음이므로 이 전탁음의 표기를 위한 各自並書의 음가는 유성음일 것이라는 논리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에 硬音說은 各自並書가 국어에 쓰인 용례들을 검토하고 신명균(1933), 또한 훈민정음 당사자들이 전탁음에 대해 가진 관념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이기문(1955) 각자병서의 음가는 된소리(경음)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鄭仁浩, 「중세어 ‘ㅅ, ㅆ’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제110권, 2010, p.243.

5) 중자음 geminate(중첩음): 연속되는 동일 발음, 보통 자음의 장음화로 나타난다. 이정민·배영남(1982:311), 중자음은 동일 조음의 연쇄이다. 이는 조음의 지속 또는 조음 동작의 연장이기 때문에 장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자음은 보통 음절 경계가 개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Catford 1977:210), 모든 밀폐자음에는 세 때(temps)가 구별된다. 밀폐 내지 내파와 장단간 지속할 수 있는 억지(tenue)와, 개방 내지 외파가 그것이다. 가령 t와 같은 단순한 한 자음의 발출에 있어서는 외파가 내파에 곧 뒤따르기 때문에 억지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지속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중자음이라고 일컫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 때가 확연히 나타난다. 중자음이란 짧은 자음보다는 더욱 힘있게 발음되는 장자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Vendryes(1921)을 이기문(1955:242)에서 재인용.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표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洪武正韻譯訓』 序文에서 ‘近代音에서 입성 소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무슨 까닭이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이것이 또 의심스러운 것이다.’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에서의 淸·濁音은 漢語 中古音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⁷⁾

崇母의 경우, 『東國正韻』에서는 ‘ㅅ’, ‘ㅆ’이 모두 반영되어 무·유성의 대립이 섞여 있고, 『訓蒙字會』에서는 이를 모두 ‘ㅅ’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邪母·禪母의 경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ㅅ’으로 표기하고 있고,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무성 마찰음인 ‘ㅅ’으로 표기하고 있다. 普通話, 粵語, 현재 우리 한자음에서도 邪母·禪母는 유성음이 아닌 무성 마찰음 /s/⁸⁾, /ʃ/이다. 반면, 吳方言 및 일부 湘方言 지역, 그리고 일본 한자음에서 유성음 /z/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全濁字가 유성음이라는 근거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가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지역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漢語 中古音의 유성음인 /z/가 모두 무성음인 /s/로 변했다는 뜻인데, 上古音 및 中古音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粵方言에서 유성음인 /z/가 모두 무성음인 /s/로 변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으며, 漢語 中古音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 한자음에서 유성음 /z/를 ‘ㅆ’으로 표기하지 않고, ‘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밖에 『東國正韻』 23字母에서 舌音을 ‘ㄷ’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訓蒙字會』에서는 舌音인 ‘ㄷ’을 『東國正韻』 23字母에서 齒音으로 규정하고 있는 ‘ㄸ’으로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에서 舌音과 齒音을 四聲七音を 근거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訓蒙字會』에서는 우리 현실 한자음을 바탕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全韻玉篇』(1796)에서는 舌上音이 ‘ㄸ’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북방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표기에서 四聲七音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6) 且有始有終 以成一字音 理之必然 而獨於入聲 世俗率不用終聲 甚無謂也. 蒙古韻 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 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 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한 글자의 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홀로 입성자에 있어서만 세속에서 대체로 종성을 쓰지 않으니 매우 까닭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운서나 황공소의 『韻會』가 입성을 역시 종성으로 쓰지 않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이것이 또 의심스러운 것이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p.227.

7) 『東國正韻』 序文에서는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와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8) 대체로 추정음에 대해서는 ‘[]’를 사용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東國正韻』 23字母, 『訓蒙字會』의 各自並書 제외한 17개 字母, 漢語 中古音 41聲類에 한해서만 음운 자질로 인정하여 음운 기호 ‘/’를 사용하기로 한다.

漢語 中古音의 四聲七音 체계를 바탕으로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 반영된 표기의 특징을 위주로 고찰하지만, 『全韻玉篇』까지의 음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 후기의 규범 한자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全韻玉篇』도 참고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2. 본론

본 장에서는 『訓蒙字會』의 齒音을 전수 조사하여, 『廣韻』 41聲類 및 『東國正韻』 23字母와의 비교를 통해, 41聲類가 『東國正韻』 23字母에서 어떻게 표기되고, 『東國正韻』 23字母의 표기는 『訓蒙字會』에서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漢語 中古音과 달리 『東國正韻』 23字母에서는 齒頭와 正齒 二等, 正齒 三等の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訓蒙字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는 各自並書로 표기하고 있지만, 『訓蒙字會』의 齒音에서는 ‘董(시)’, ‘氣(시)’, ‘君(시)’, ‘盤(ㅅㅅ)’의 合用並書와 ‘射(ㅅㅅ)’, ‘蓴(ㅅㅅ)’, ‘寫(ㅅㅅ)’의 各自並書만이 사용되었다.

이것을 <표1>로 정리하여 『廣韻』,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의 齒音의 分合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표1>9)

七音	中古 漢語 41聲母		中原 音韻		東國 正韻 23字母	四聲 通解 31聲母		訓蒙 字會		全韻 玉篇		
牙音	見 /k/		見 /k/		君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ㄱ	
	溪 /kʰ/		溪 /kʰ/		快 ㅋ	溪 /kʰ/	ㅋ	溪 /kʰ/	ㅋ	溪 /kʰ/	ㅋ	
	羣 /gʰ/		羣 /kʰ/		虬 ㄱ	羣 /gʰ/	ㄱ	羣 /gʰ/	ㄱ	羣 /gʰ/	ㄱ	
	疑 /ŋ/		疑 /o/		業 ㅇ	疑 /ŋ/	ㅇ	疑 /ŋ/	ㅇ	疑 /ŋ/	ㅇ	
舌音	舌頭	端/t/	舌頭	端/t/	斗 ㄷ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ㄷ
	舌上	知/tʃ/	舌上	知/tʃ/		舌上	知/tʃ/		ㄷ	舌上	知/tʃ/	ㄷ
	舌頭	透/tʰ/	舌頭	透/tʰ/	吞 ㅌ	舌頭	透/tʰ/	ㅌ	舌頭	透/tʰ/	ㅌ	ㅌ
	舌上	徹/tʰʃ/	舌上	徹/tʰʃ/		舌上	徹/tʰʃ/		ㅌ	舌上	徹/tʰʃ/	ㅌ
	舌頭	定/dʰ/	舌頭	定/t/	覃 ㄸ	舌頭	定/dʰ/	ㄸ	舌頭	定/dʰ/	ㄷ	ㄷ
	舌頭	端/t/	舌頭	端/t/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舌頭	端/t/	舌頭	端/t/	斗 ㄷ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ㄷ
	舌頭	端/t/	舌頭	端/t/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9)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淸音과 濁音이 우리 한자음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표기와 비교하고, 중국 한자음을 傳寫하고 있는 동일 저자의 『四聲通解』 한자음과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舌上	澄/dʰ/	舌上	澄/tsʰ/					舌上	澄/dʰ/	ㄷ	舌上	澄/dʰ/	ㄷ	
	舌頭	泥/n/	舌頭	泥/n/	那 ㄋ	舌頭	泥/n/	ㄋ	舌頭	泥/n/	ㄋ	舌頭	泥/n/	ㄋ	
	舌上	娘/n/	舌上	娘/n/					舌上	娘/n/	ㄋ	舌上	娘/n/	ㄋ	
半舌	來 /l/		來 /l/		間 ㄹ	來/l/		ㄹ	來 /l/		ㄹ	來 /l/		ㄹ	
唇音	重唇	幫/p/	重唇	幫/p/	幫 ㅃ	重唇	幫/p/	ㅃ	重唇	幫/p/	ㅃ	重唇	幫/p/	ㅃ	
	輕唇	非/p/	輕唇	非/f/		輕唇	非/p/	ㅍ	輕唇	非/p/	ㅍ	輕唇	非/p/	ㅍ	
	重唇	滂/pʰ/	重唇	滂/pʰ/	漂 ㅍ	重唇	滂/pʰ/	ㅍ	重唇	滂/pʰ/	ㅍ	重唇	滂/pʰ/	ㅍ	
	輕唇	敷/pʰ/	輕唇	敷/f/					輕唇	敷/pʰ/	ㅍ	輕唇	敷/pʰ/	ㅍ	
	重唇	並/bʰ/	重唇	並/p/	步 ㅍ	重唇	並/bʰ/	ㅍ	重唇	並/bʰ/	ㅍ	重唇	並/bʰ/	ㅍ	
	輕唇	奉/bʰ/	輕唇	奉/f/		輕唇	奉/bʰ/	ㅍ	輕唇	奉/bʰ/	ㅍ	輕唇	奉/bʰ/	ㅍ	
	重唇	明/m/	重唇	明/m/	彌 ㅁ	重唇	明/m/	ㅁ	重唇	明/m/	ㅁ	重唇	明/m/	ㅁ	
	輕唇	微/m/	輕唇	微/u/		輕唇	微/m/	ㅁ	輕唇	微/m/	ㅁ	輕唇	微/m/	ㅁ	
齒音	齒頭	精/ts/	齒頭	精/ts/	卽 ㄷ	齒頭	精/ts/	ㄷ	齒頭	精/ts/	ㄷ	齒頭	精/ts/	ㄷ	
	正齒(2)	莊/tʃ/	正齒(2)	莊/tsʰ/		正齒	照/tɕ/	ㄷ	正齒(2)	莊/tʃ/		正齒(2)	莊/tʃ/	ㄷ	
	正齒(3)	章,照 /tɕ/	正齒(3)	章,照 /tsʰ/					正齒(3)	章,照 /tɕ/		正齒(3)	章,照 /tɕ/	ㄷ	
	齒頭	清/tsʰ/	齒頭	清/tsʰ/	侵 ㄷ	齒頭	清/tsʰ/	ㄷ	齒頭	清/tsʰ/	ㄷ	齒頭	清/tsʰ/	ㄷ	
	正齒(2)	初/tʃʰ/	正齒(2)	初/tsʰ/		正齒	穿/tɕʰ/	ㄷ	正齒(2)	初/tʃʰ/		正齒(2)	初/tʃʰ/	ㄷ	
	正齒(3)	昌,穿 /tɕʰ/	正齒(3)	昌,穿 /tsʰ/					正齒(3)	穿/tɕʰ/		正齒(3)	穿/tɕʰ/		
	齒頭	從/dzʰ/	齒頭	從/tsʰ/	ㄷ	慈 ㄷ	齒頭	從/dzʰ/	ㄷ	齒頭	從/dzʰ/	ㄷ	齒頭	從/dzʰ/	ㄷ
	正齒(2)	崇,牀 /dʒʰ /	正齒(2)	崇,牀 /tsʰ/	ㄷ		正齒	牀/dʒʰ/	ㄷ	正齒(2)	崇,牀 /dʒʰ/	ㄷ	正齒(2)	崇 /dʒʰ/	ㄷ
	正齒(3)	船,神 /dzʰ /	正齒(3)	船,神 /tsʰ/	ㄷ				正齒(3)	船,神 /dzʰ/	ㄷ	正齒(3)	船,神 /dzʰ/	ㄷ	
	齒頭	心/s/	齒頭	心/s/	戌 ㄷ	齒頭	心/s/	ㄷ	齒頭	心/s/	ㄷ	齒頭	心/s/	ㄷ	
	正齒(2)	生,疏 /ʃ/	正齒(2)	生,疏 /s/		正齒	審/ʃ/	ㄷ	正齒(2)	生,疏 /ʃ/		正齒(2)	生,疏 /ʃ/	ㄷ	
	正齒(3)	書,審 /ɕ/	正齒(3)	書,審 /sʰ/					正齒(3)	書,審 /ɕ/		正齒(3)	書,審 /ɕ/	ㄷ	
	齒頭	邪/z/	齒頭	邪/s/	邪 ㄷ	齒頭	邪/z/	ㄷ	齒頭	邪/z/	ㄷ	齒頭	邪/z/	ㄷ	
	正齒(3)	禪/z/	正齒(3)	禪/sʰ/		正齒	禪/ʒ/	ㄷ	正齒(3)	禪/z/		正齒(3)	禪/z/	ㄷ	
半齒	日 /n/		日 /t/		穰 ㄷ	日 /n/		ㄷ	日 /n/		ㄷ	日 /n/		ㅇ	
喉音	影 /ʀ/		影 /Ø/		挹 ㅁ	影 /ʀ/		ㅁ	影 /ʀ/		ㅇ	影 /ʀ/		ㅇ	
	曉 /x/		曉 /x/		虛 ㅁ	曉 /x/		ㅁ	曉 /x/		ㅁ	曉 /x/		ㅁ	
	匣 /ʎ/		匣 /x/		洪 ㅁ	匣 /ʎ/		ㅁ	匣 /ʎ/		ㅁ	匣 /ʎ/		ㅁ	
	喻 /Ø/		喻 /Ø/		欲 ㅇ	喻 /Ø/		ㅇ	喻 /Ø/		ㅇ	喻 /Ø/		ㅇ	
	爲 /ʎ/		爲 /Ø/			爲 /ʎ/		ㅇ	爲 /Ø/		ㅇ	爲 /Ø/		ㅇ	

본문에서의 기술은 위의 <표1>의 齒音 字母 순으로 정렬하였다.

1) 精母(齒頭)

<표2>¹⁰⁾ 精母(齒頭)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左	精	·장, 장	좌(雜語)	자	則箇	果開一去箇精全清	tsa	tsuo	tsuo ³
左	精	·장, 장	좌(雜語)	자	臧可	果開一上苟精全清	tsa	tsuo	tsuo ³
置	精	장	저(器皿)	차(俗저 ¹¹⁾)	子邪	假開三平麻精全清	tsja	tsie	tey ¹
驚	精	중	조(禽鳥)	조	子之	止開三平之精全清	tsi	tsʰi	tsʰi ²
勣	精	·적	적(雜語)	적	則歷	梗開四入錫精全清	tsiek		tɕi ¹
績	精	·적	적(雜語)	적	則歷	梗開四入錫精全清	tsiek	tsi	tɕi ¹
尊	精	존	존(雜語)	존	祖昆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tsuən	tsuən ¹
鬢	精	중	중(雜語)	중	子紅	通合一平東精全清	tsun		tsun ¹
偶	精	·준	준(儒學)	준	子峻	臻合三去稕精全清	tsjuen		tɕyn ⁴
俊	精	·준	준(雜語)	준	子峻	臻合三去稕精全清	tsjuen	tsiuən	tɕyn 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精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一·三·四等, 合口 一·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모두 치조 파찰음¹²⁾ /t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精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淸字 ‘ㄷ’(卽母)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精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ㄷ’으로 표기되고, 92字로 전체의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精母 계열의 글자들은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 대체로 ‘ㄷ’에 대응된다.

여섯째, 漢語 中古音의 齒音에서는 齒頭, 正齒 二等, 正齒 三等으로 分韻되지만,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는 分韻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본고에서 기술되고 있는 표는 漢語 中古音 36字母와 開合 및 等呼를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訓蒙字會』의 齒音 684字를 전수 조사하였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표 당 10개 정도의 글자만 남기고 41聲類에 해당되는 예시 글자가 10개 이하일 때는 해당 자리를 모두 본문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11) 『全韻玉篇』의 俗音字 수는 620여 字로,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우리 한자음을 전적으로 정칙음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이 한자음에 대하여 X正Y 또는 X俗Y로 당시의 통용음을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俗’이나 ‘正’의 구별은 俗音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正·俗音を 동시에 표시한 字는 ‘俗’으로 사용하고,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교정한 음이 『華東正音通釋韻考』와 다를 때 ‘正’으로 나타냈다. 이에 正音을 정칙음으로, 俗音을 통용음 또는 관용음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한자음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30권, 국어학회, 1997, p.4.

12) 본고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 관련된 용어는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를 따르기로 한다.

2) 莊母(正齒 二等), 章母(正齒 三等)

<표3> 莊母(正齒 二等)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鮮	莊	:장	자(食饌)	자	側下	假開二上馬莊全清	tʃa	tʃa	tʃa ³
植	莊	장	자(菓實)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¹
榨	莊	:장	자(器皿)	자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	tʃa ⁴
箏	莊	징	징(音樂)	징	側莖	梗開二平耕莊全清	tʃæŋ	tʃæŋ	tʃæŋ ¹
幘	莊	:직	직(腹飾)	직	側革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tʃai	tʃy ²
蕞	莊		좁(蔬采)	좁	阻立	深開三入緝莊全清	tʃjep		tʃei ²
簪	莊	좁, 잠	좁(腹飾)	좁	側吟	深開三平侵莊全清	tʃjem	tʃəm,	tʃan ¹
沮	莊	정, 정, 정	저(地理)	저	側魚	遇開三平魚莊全清	tʃjo	tsiu	tʃy ¹
滓	莊	:경	지(雜語)	즈	阻史	止開三上止莊全清	tʃi		tsi ³
菹	莊	중	조(食饌)	저	臻魚	*遇合三平魚莊全清			tʃio ¹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莊母 계열의 글자들 중에서 ‘菹’만 合口 三等에 속하며, 나머지 글자들은 開口 二·三等으로 모두 全清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tʃ/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s/과 경구개 파찰음 /tʃ/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莊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清字 ‘ㄷ’(卽母)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莊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ㄷ’으로 표기되고, 26字로 전체의 4%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莊母 계열의 글자들은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 대다수의 글자가 ‘ㄷ’에 대응된다.

<표4> 章母(正齒 三等)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洲	章	츰	쥬(地理)	쥬	職流	流開三平尤章全清	tʃju	tʃiou	tʃou ¹
鷗	章	전	전(禽鳥)	전	諸延	山開三平仙章全清	tʃjæn	tʃien	tʃan ¹
斟	章	짐	짐(雜語)	침	職深	深開三平侵章全清	tʃjem	tʃiem	tʃan ¹
職	章	:직	직(雜語)	직	之翼	曾開三入職章全清	tʃjæk		tsi ²
砥	章	징	지(雜語)	지	職雉	止開三上旨章全清	tʃjei	tʃi	ti ³
樽	章		준(器皿)	준	祖昆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tsuən	tsuən ¹
朱	章	중	쥬(彩色)	쥬	章俱	遇合三平虞章全清	tʃjuo	tʃiu	tʃu ¹
稕	章	:준	준(雜語)	준	之閏	臻合三去稕章全清	tʃjuen		tsuən ⁴
鐘	章	중	중(音樂)	중	職容	通合三平鍾章全清	tʃjuŋ	tʃiuŋ	tʃuŋ ¹
腫	章	:중	중(疾病)	중	之隴	通合三上腫章全清	tʃjuŋ	tʃiuŋ	tʃuŋ ³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章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三等, 合口 一·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tɕ/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ɕ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章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淸字 ‘ㅈ’(卽母)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章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ㅈ’으로 표기되고, 93字로 전체의 14%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章母 계열의 글자들은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ㅈ’에 대응된다.

<표5> 其他聲母¹³⁾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噪 ^{*14)}	心	·술	조(雜語)	소俗조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淸	sau	sau	tsau ⁴
臊 [*]	心	·술	조(雜語)	소俗조	蘇遭	效開一平豪心全淸	sau	sau	sau ¹
擠	心 (精)	·쟁, ·쟁	제(雜語)	제	相稽	蟹開四平齊心全淸	tsiei	tsi	tɕi ³
隼 [*]	心	·순	준(禽鳥)	순正준	思尹	臻合三上準心全淸	sjuen	siuən	suən ³
羶 [*]	書	·션	전(雜語)	션俗전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淸	ɕjæn	ɕien	ɕan ¹
疢 [*]	書	·섬, ·섬	점(疾病)	점	失廉	咸開三平鹽書全淸	ɕjæm		ɕan ¹
鵠 [*]	書		창(禽鳥)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淸	ɕjuoŋ		tɕʰuŋ ¹
啞 [*]	生		잡(雜語)		所甲	咸開二入狎生全淸	ʃap	tsa	ɕa ⁴
孺 [*]	生	·쌍	장(人類)	장	所力	曾開三上職生全淸	ʃjæk	tɕʰianɯ	tɕʰianɯ ²
赤 [*]	昌	·적	적(彩色)	적	昌石	梗開三入昔昌次淸	tɕʰjek	tɕʰi	tɕʰi ⁴
杵 [*]	昌	·청	저(器皿)	저	昌與	遇開三上語昌次淸	tɕʰjo	tɕʰiu	tɕʰu ³
蠶 [*]	昌	·춘	준(雜語)	준	尺尹	臻合三上準昌次淸	tɕʰjuen	tɕʰiuən	tɕʰuən ³
腠 [*]	清	·출	주(身體)	주	倉奏	流開一去候清次淸	tɕʰu		tɕʰou ⁴
糙 [*]	清	·출	조(食饌)	조	七到	效開一去號清次淸	tɕʰau	tɕʰau	tɕʰau ¹
造 [*]	清	·출, ·쫘	조(雜語)	조	七到	效開一去號清次淸	tɕʰau	tɕʰau	tsau ⁴
磧 [*]	清	·척	적(地理)	적	七迹	梗開三入昔清次淸	tɕʰjek		tɕʰi ⁴
緝 [*]	清	·칩	즙(雜語)	즙	七入	深開三入緝清次淸	tɕʰjep		tɕi ¹
蛆 [*]	清	·정	저(昆蟲)	저	七余	遇開三平魚清次淸	tɕʰjo	tɕʰiu	tɕʰy ¹
沮 [*]	清	·정, ·정, ·정	저(地理)	저	七余	遇開三平魚清次淸	tɕʰjo	tsiu	tɕy ¹
疽 [*]	清	·정, ·정	저(疾病)	저	七余	遇開三平魚清次淸	tɕʰjo	tsiu	tɕy ¹
雌 [*]	清	·충	즈(雜語)	즈	此移	止開三平支清次淸	tɕʰje	tsi	tɕʰi ²
薊 [*]	清	·칙	즈(雜語)		七賜	止開三去寘清次淸	tɕʰje	tɕʰi	tɕʰi ⁴
鵲 [*]	清	·착	작(禽鳥)	작	七雀	宕開三入藥清次淸	tɕʰjak	tɕʰiau	tɕʰye ⁴
竊 [*]	清	·철	절(雜語)	절	千結	山開四入屑清次淸	tɕʰiet	tɕʰie	tɕʰie ⁴
卒 [*]	清	·졸, ·졸, ·졸	졸(人類)	졸, 졸	倉沒	臻合一入沒清次淸	tɕʰuət	tsu	tɕʰu ⁴
猝 [*]	清		졸(喪葬)	졸	倉沒	臻合一入沒清次淸	tɕʰuət		tɕʰu ⁴
鴟 [*]	清		저(禽鳥)		千余	*遇合三平魚清次淸			tɕʰi ¹
皴 [*]	清	·춘	준(雜語)	준	七倫	臻合三平諄清次淸	tɕʰjuen	tɕʰiuən	tɕʰuən ¹

13) <표5>에서는 精母, 莊母, 章母와 관련이 없는 又音字만을 제시한다.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의 心母·書母는 『東國正韻』에서 ‘ㅅ’으로, 昌母·淸母는 『東國正韻』에서 ‘ㅈ’으로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보이지만, 『訓蒙字會』에서는 ‘ㅅ’, ‘ㅈ’ 계열이 ‘ㅈ’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訓蒙字會』에서 ‘ㅈ’은 『全韻玉篇』의 ‘噪’, ‘臊’, ‘隼’, ‘羶’의 正音を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ㅈ’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知母(舌上音)

<표6> 知母(舌上音)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椿	知	창	창(器皿)	창	都江	江開二平江知全清	tɕŋ	tɕaŋ	tɕuan ¹
樞	知	창	좌(鞍具)	좌俗과	陟瓜	假合二平麻知全清	tua		tɕua ¹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知母 계열의 ‘椿’, ‘樞’은 開口 二等, 合口 二等에 속하며,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경구개 파열음 /tɕ/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ɕ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知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淸字 ‘ㄷ’으로 표기된다.

넷째, 『東國正韻』에서는 又音字를 제외하고 知母를 일률적으로 ‘ㄷ’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訓蒙字會』에서는 知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舌音이 아닌 齒音 ‘ㅈ’으로 표기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中原音韻』의 추정음과 일맥상통하고, 『全韻玉篇』의 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舌上音의 ‘ㄷ’에서 ‘ㅈ’으로의 표기가 중국 북방음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자음을 반영한 것인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全淸 舌音을 대체적으로 ‘ㄷ’으로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달리, 『訓蒙字會』에서는 舌音을 齒音 ‘ㅈ’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ㄷ’에서 ‘ㅈ’으로의 변화가 표기에서의 변화인지 당시 현실 우리 한자음의 반영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i/, /-y/ 앞이 아닌 ‘나’ 앞에서 치조 파열음 ‘ㄷ’이 경구개 파찰음 ‘ㅈ’으로 표기되는 것은 구개음화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¹⁵⁾

14) 김은화·김민정·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上 -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어언어연구』, 제86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0, p.2.

15) 국어 파찰음에 대한 논의는 후기 중세 국어의 파찰음 ‘ㅈ’의 정확한 조음 위치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박창원(1995)에서는 훈민정음 초성체계에 대한 먼

4) 淸母(齒頭音)

<표7> 淸母(齒頭音) *『東國正韻』의 侵母(ㄸ)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搓	淸	창	차(雜語)	차	七何	果開一平歌淸次淸	ts ^h a	ts ^h uo	ts ^h uo ¹
綵	淸	칭	치(雜語)	치	倉宰	蟹開一上海淸次淸	ts ^h ʌi	ts ^h ai	ts ^h ai ³
圉	淸	청	청(宮宅)	청	七情	梗開三平淸淸次淸	ts ^h jeŋ	tsiɛŋ	tɕ ^h iŋ ¹
鞞	淸	츰	쥬(器皿)	쥬	七由	流開三平尤淸次淸	ts ^h ju	ts ^h iəu	tɕ ^h iəu ¹
鍼	淸	척	척(軍將)	척	倉歷	梗開四入錫淸次淸	ts ^h iek		tɕ ^h i ¹
蜻	淸	정	청(昆蟲)	정正청	倉經	梗開四平青淸次淸	ts ^h ieŋ		tɕ ^h iŋ ¹
錯	淸	착, 총	착(雜語)	조, 착	倉故	遇合一去暮淸次淸	ts ^h uo	ts ^h u	ts ^h u ⁴
聰	淸	총	총(雜語)	총	倉紅	通合一平東淸次淸	ts ^h uŋ		ts ^h uŋ ¹
娶	淸	츰	쥬(天倫)	쥬	七句	遇合三去遇淸次淸	ts ^h juo	ts ^h iu	tɕ ^h y ³
翠	淸	칭	취(禽鳥)	취	七醉	止合三去至淸次淸	ts ^h juei	ts ^h ui	ts ^h uei 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淸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一·三·四等과 合口 一·三等에 속하며, 모두 次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모두 치조 파찰음 /ts^h/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淸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次淸字 ‘ㄸ’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淸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ㄸ’으로 표기되고, 55字로 전체의 8%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初母 계열의 글자들은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ㄸ’에 대응된다.

5) 初母(正齒 二等), 昌母(正齒 三等)

<표8> 初母(正齒 二等) *『東國正韻』의 侵母(ㄸ)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杈	初	창	차	차	初牙	假開二平麻初次淸	tʃ ^h a		tʃ ^h a ¹
窓	初		창(宮宅)	창	楚江	江開二平江初次淸	tʃ ^h ɔŋ		tʃ ^h uɑŋ ¹
柵	初	척	척(宮宅)	척	測戟	梗開二入陌初次淸	tʃ ^h ek		tʃa ⁴

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15세기 국어의 파찰음 ‘ㄸ’이 치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중략)치음이든 치조음이든 전설모음 ‘i’나 경구개 활음 ‘j’에 의한 구개음화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규, 「국어 파찰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구개음화」, 『우리말글』, 2013, p.30-31.

汧	初	:창	차(地理)	차	楚懈	蟹開二去卦初次清	tʃʰæi	tʃʰa	tʃʰai⁴
鈔	初	츰, 츠	초(金寶)	초	初敎	效開二去效初次清	tʃʰau	tʃʰau	tʃʰau¹
礎	初	:총	초(宮宅)	초	創舉	遇開三上語初次清	tʃʰjo	tʃʰu	tʃʰu³
輻	初		칙(車輿)	칙	楚持	止開三平之初次清	tʃʰi		ts¹
櫬	初	즌	친(喪葬)	즌	初覲	臻開三去震初次清	tʃʰjen		tʃʰən⁴
搶	初	칭, :창, 창	창(雜語)	창	初兩	宕開三上養初次清	tʃʰjan	tʃʰian	tʃʰian¹
翦	初		주(雜語)		翫俞	*遇合三平虞初次清			ʃʰio¹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初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二·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次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tʃ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ʃ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初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次淸字 ‘ㅈ’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初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ㅈ’으로 표기되고, 28字로 전체의 4%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9> 昌母(正齒 三等) *『東國正韻』의 侵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斥	昌	·척, 척	척(雜語)	척	昌石	假開三去禡昌次清	tɕʰjek		tɕʰɿ⁴
尺	昌	·척	척(器皿)	척	昌石	梗開三入昔昌次清	tɕʰjek	tɕʰi	tɕʰɿ³
臭	昌	·츰, 츠	취(雜語)	츰	尺敎	流開三去宥昌次清	tɕʰju	tɕʰieu	tɕʰou⁴
處	昌	:청, 청	처(雜語)	처	昌據	遇開三去御昌次清	tɕʰu⁴	tɕʰiu	tɕʰu³
秤	昌	·칭	칭(器皿)	칭	昌孕	曾開三去證昌次清	tɕʰjɛŋ	tɕʰian	tɕʰɛŋ⁴
眵	昌	칭	치(身體)	치	叱支	止開三平支昌次清	tɕʰje	tɕʰi	tɕʰɿ¹
川	昌	첸	천(地理)	첸	昌緣	山合三平仙昌次清	tɕʰjuæn	tɕʰiuən	tɕʰuan¹
炊	昌	칭	취(雜語)	취	昌垂	止合三平支昌次清	tɕʰjue	tɕʰui	tɕʰuei¹
莚	昌	츰	충(草卉)	츰	昌終	通合三平東昌次清	tɕʰjun		tɕʰun¹
觸	昌	·촉	촉(雜語)	촉	尺玉	通合三入燭昌次清	tɕʰjuok	tɕʰu	tɕʰu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昌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次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tɕ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ɕ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昌母에 해당 글자들은 次淸字 ‘ㅈ’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昌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ㅈ’으로 표기되고, 33字로 전체의 5%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10> 其他聲母¹⁶⁾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鉦*	崇	·작	작(器皿)	작	士角	江開二入覺崇全濁	dʒʰɔk		tʃuo ²
鎗	崇		찰(器皿)		槎轄	*山開二入羣崇全濁			dʒet ⁴
讖*	崇	·잠, ·잠	참(雜語)	참	士銜	咸開二平銜崇全濁	dʒʰam	tʃʰam	tʃʰan ²
饑*	崇	·잠	참(雜語)	참	士咸	咸開二平咸崇全濁	dʒʰem	tʃʰam	tʃʰan ²
讖*	崇	·잠, ·잠	참(雜語)	참	士微	咸開二去鑑崇全濁	0jo	tʃʰam	tʃʰan ²
讖*	崇	·잠, ·잠	참(雜語)	참	士咸	咸開二平咸崇全濁	dʒʰem	tʃʰam	tʃʰan ²
寨*	崇	·숙	채(官衙)	치	豺夬	蟹開二去夬崇全濁	dʒʰai	tʃai	tʃai ⁴
饌*	崇	·잔, ·잔, ·선	찬(食饌)	찬, 천	雛鮫	山合二上清崇全濁	dʒʰuan	tʃuan	tʃuan ⁴
饌*	崇	·잔, ·잔, ·선	찬(食饌)	찬, 천	七戀	山合三去線崇全濁	dʒʰuaen	tʃuan	tʃuan ⁴
雛*	崇	·중	추(雜語)	추	仕于	遇合三平虞崇全濁	dʒʰjuo	tʃʰu	tʃʰu ²
寨*	心	·숙	채(官衙)	치	蘇則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tʃai	sɿ ⁴
穆*	心	·삼	참(食饌)	삼	桑感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sam	san ³
綃*	心	·술	초(布帛)	소俗초	相邀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siau	ciæu ¹
娶*	心	·중	취(天倫)	추	相俞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siau	tcʰy ³
柵*	生	·척	척(宮宅)	척	所晏	山開二去諫生全清	ʃan	tsʰiu	tʃa ⁴
釀*	生		채(雜語)		所賣	蟹開二去卦生全清	ʃæi		ʃai ⁴
梢*	生	·술	초(雜語)	쇼	所交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ʃau	ʃau ¹
綃*	生	·술	초(布帛)	소俗초	所交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siau	ʃau ¹
艖*	生		초(舟船)	쇼	師交	*效開二平爻生次清			ʃau ¹
艖*	生		초(舟船)	쇼	所教	*效開二去效生次清			ʃau ³
穰*	生	·형	최(宮宅)	최	所追	止合三平脂生全清	ʃjuei	tsʰui	tsʰuei ¹
筊*	禪	·원	·천(官衙)	천	市緣	山合三平仙禪全濁	zjuæŋ		tsʰuan ²
牒*	禪		천(身體)	천	市克	山合三上獮禪全濁	zjuæŋ		ʃuan ⁴
筊*	禪	·원	·천(官衙)	천	是為	止合三平支禪全濁	zjue		tsʰuan ²
鑿*	從	·작, ·작, ·꼴	작(器皿)	조, 착	在各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ak	tsau	tsau ²
竿*	從	·작, ·작, ·장	척(雜語)	척, 작	在各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ak		tsuo ²
瘠*	從	·적	척(疾病)	척	秦昔	梗開三入昔從全濁	dzʰjek		tcɛ ²
鷲*	從	·꿀	추(禽鳥)	추	疾僦	流開三去宥從全濁	dzʰju	tsiæu	tcɛi ⁴
湫*	從	·줄, 줄	추(地理)	초, 추	在九	流開三上有從全濁	dzʰju	tsiæu	tcɛi ⁴
賤*	從	·전	천(雜語)	천	才線	山開三去線從全濁	dzʰjaen	tsien	tcɛian ⁴
踐*	從	·전, ·선	천(雜語)	천	慈演	山開三上獮從全濁	dzʰjaen	tsien	tcɛian ⁴
晴*	從		청(雜語)	청	疾盈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eŋ	tsʰieŋ	tcʰieŋ ²
堵*	從	·적	척(雜語)	척	秦昔	梗開三入昔從全濁	dzʰjek		tcɛ ²
嘴*	從	·칭	취(雜語)	취	慈呂	遇開三上語從全濁	dzʰjo		tcɛy ³
樵*	從	·꿀	초(疾病)	초	昨焦	效開三平宵從全濁	dzʰjæu		tcʰiau ²
樵*	從	·꿀	초(人類)	초	昨焦	效開三平宵從全濁	dzʰjæu	tsʰiau	tcʰiau ²
誚*	從	·꼴	초(雜語)	초	才笑	效開三去笑從全濁	dzʰjæu	tsʰiau	tcʰiau ⁴
鑿*	從	·작, ·작, ·꼴	작(器皿)	조, 착	昨木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tsau	tsu ²
叢*	從	·중	총(雜語)		徂紅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tsʰuŋ	tsʰuŋ ²
鏗*	從		차(器皿)		昨木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tsʰuɔ	tsʰuɔ ⁴
鏗*	從		차(器皿)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ʰua	tsʰuɔ	tsʰuɔ ⁴
𪔐*	從	·팡	자(食饌)	차	昨何	果開一平歌從全濁	dzʰa	tsʰuɔ	tsʰuɔ ²
泉*	從	·원	천(地理)	천	疾緣	山合三平仙從全濁	dzʰjuæŋ	tsʰiuæŋ	tcʰian ²
悴*	從	·평	취(疾病)	취俗취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ʰjuei	tsʰui	tsʰuei ⁴

16) <표10>에서는 知母, 淸母, 初母, 昌母와 관련이 없는 又音字만을 제시한다.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站	知		참(官衙)	참	陟陷	咸開二去陷知全清	tem	tɕam	tɕan ⁴
箠	知	:칭	첸(鞍具)	쥬	竹垂	止合三平支知全清	tjue	tɕʰui	tɕuei ¹
隻	章	:적	적(雜語)	적	之石	梗開三入昔章全清	tejek	tɕi	tɕɿ ¹
鯖	章	정, 청	청(鱗介)	청	諸盈	梗開三平清章全清	tejer	tɕʰiəŋ	tɕəŋ ¹
筲	章	:줄	쥬(器皿)	쥬	之九	流開三上有章全清	teju	tɕiəu	tɕou ³
枕	章	:짐, 짐	침(器皿)	침	之任	深開三去沁章全清	tejem	tɕiəm	tɕən ³
鍼	章	짐, 검	침(器皿)	침, 검	職深	深開三平侵章全清	tejem		tɕən ¹
枕	章	:짐, 짐	침(器皿)	침	章荏	深開三上寢章全清	tejem	tɕiəm	tɕən ³
呪	章	:줄	쥬(人類)	주	職救	流開三去有章全清	teju	tɕiəu	tɕou ⁴
卮	章	징	치(器皿)	치	章移	止開三平支章全清	teje	tɕi	tɕɿ ¹
眇	章	칭	치(身體)	치	章移	止開三平支章全清	teje	tɕʰi	tɕʰɿ ¹
瞻	章	점	첨(雜語)	첨	職廉	咸開三平鹽章全清	tejaem	tɕiəm	tɕan ¹
箠	章	:칭	첸(鞍具)	쥬	之累	止合三上紙章全清	tejue	tɕʰui	tɕʰuei ²
捶	章	:칭, :왕	첸(雜語)	쥬, 타	之累	止合三上紙章全清	tejue	tɕʰui	tɕʰuei ²
錐	章	형	초(器皿)	쥬	職追	止合三平脂章全清	tejuei	tɕui	tɕuei ¹
雀	章	환, 형	쥬(草卉)	쥬, 환	職追	止合三平脂章全清	tejuei		tɕuei ¹
住	章	형	초(禽鳥)	쥬	職追	止合三平脂章全清	tejuei		tɕuei ¹
燭	章	:죽	죽(器皿)	죽	之欲	通合三入燭章全清	tejuok	tɕiu	tɕu ²
贅	章	:형	첸(疾病)		之芮	蟹合三去祭章全清	tejuæi	tɕui	tɕuei ⁴
緇	精	줄	쥬(雜語)	주	子侯	流開一平侯精全清	tsu	tɕəu	tsou ¹
讚	精	:잔	찬(雜語)	찬	則盱	山開一去翰精全清	tsan	tsan	tsan ⁴
撈	精	:잡	찰(雜語)	찰	姊末	山開一入末精全清	tsuat		tsa ¹
鑿	精	:자, :짜, :꼴	작(器皿)	조, 작	則落	宕開一入鐸精全清	tsak		tsuo ⁴
鵲	精		적(禽鳥)	적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tcɿ ²
蜻	精	정	청(昆蟲)	정正청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er		tcɿŋ ¹
晴	精	정, :청	청(身體)	정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er	tsiəŋ	tcɿŋ ¹
脊	精	:적	적(身體)	적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tɕi	tcɿ ³
借	精	:적, :장	차(雜語)	차, 적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tsie	tcɿe ⁴
湫	精	:줄, 줄	쥬(地理)	초, 쥬	即由	流開三平尤精全清	tsju	tsiəu	tcɿou ¹
儻	精	:줄	취(雜語)	쥬	即就	流開三去宥精全清	tsju		tcɿou ⁴
嘴	精	:칭	첸(雜語)	취	子與	遇開三上語精全清	tsjo		tcɿ ³
睫	精	:접	첩(身體)	첩	即葉	咸開三入葉精全清	tsjæp	tsie	tcɿe ²
鵲	精		적(禽鳥)	적	子力	曾開三入職精全清	tsjak		tcɿ ²
椒	精	줄	초(菓實)	초	即消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tsiau	tcɿau ¹
鷗	精	줄	초(禽鳥)	초	即消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tcɿau ¹
焦	精	줄, 꼴	초(雜語)	초	即消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tsiau	tcɿau ¹
蕉	精	줄, 꼴	초(草卉)	초	即消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tsiau	tcɿau ¹
嘴	精	:칭	첸(雜語)	취	姊宜	止開三平支精全清	tsjue		tsuei ³
跣	精	:증, :쟁	채(雜語)	조	將此	止開三上紙精全清	tsje	tɕʰi	tsɿ ³
薦	精	:전, :편	천(器皿)	천	作甸	山開四去霰精全清	tsien	tsien	tcɿan ⁴
湫	精	:줄, 줄	쥬(地理)	초, 쥬	子了	效開四上篠精全清	tsieu	tsiəu	tcɿau ³
鑽	精	:잔	찬(器皿)	찬	子算	山合一去換精全清	tsuan	tsuən	tsuan ⁴
鑽	精	:잔	찬(雜語)	찬	借官	山合一平桓精全清	tsuan	tsuən	tsuan ¹
緇	精	줄	쥬(雜語)	주	子句	遇合三去遇精全清	tsjuo	tɕəu	tsou ¹
嘴	精	:칭	첸(雜語)	취	遵為	止合三平支精全清	tsjue		tsuei ¹
嘴	精	:칭	첸(雜語)	취	即委	止合三上紙精全清	tsjue		tsuei ³
醉	精	:칭	취(雜語)	취	將遂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tsui	tsuei ⁴
窄	莊	:직, :짜, :장	직(雜語)	직, 작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ja		tɕa ⁴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鱸*	莊		차(身體)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¹
醺*	莊		채(雜語)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⁴
瘧*	莊		차(疾病)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¹
債*	莊	·칙, ·쟁	채(雜語)	채	側革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tʃai	tʃai⁴
筴*	莊	·칙, ·작, ·장	척(雜語)	척, 작	側伯	梗開二入陌莊全清	tʃek		tsɿ²
讀*	莊		척(雜語)	척	側革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tsɿ²
蹴*	莊	·중, ·쟁	채(雜語)	츠	阻賈	蟹開二上蟹莊全清	tʃæi	tsʰi	tsɿ³
債*	莊	·칙, ·쟁	채(雜語)	채	側賈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tʃai	tʃai⁴
緇*	莊	·줄	추(雜語)	추	側鳩	流開三平尤莊全清	tʃju	tʃəu	tsou¹
齋*	莊	·줄	추(雜語)	추	側救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tʃəu	tsou⁴
贅*	莊	·줄	추(雜語)	추	側救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tsʰəu	tsou⁴
縗*	莊	·줄	추(布帛)	추	側救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tsou⁴
譜*	莊	·중, ·점	춤(雜語)	춤	莊蔭	深開三去沁莊全清	tʃjem	tʃəm	tsən⁴
𪔐*	莊	·죽	척(雜語)	측	阻力	曾開三入職莊全清	tʃjæk	tʃai	tsɿ⁴
仄*	莊	·죽	측(雜語)	측	阻力	曾開三入職莊全清	tʃjæk	tʃai	tsɿ⁴
輶*	莊		칙(車輿)	칙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tsɿ¹
鯢*	莊		칙(鱗介)	칙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tsɿ¹
蹴*	莊	·중, ·쟁	채(雜語)	츠	側氏	止開三上紙莊全清	tʃje	tsʰi	tsɿ³
枕*	澄	·짐, ·짐	침(器皿)	침	直深	深開三平侵澄全濁	dʒjem	tʃiəm	tsʰən²

첫째, 『東國正韻』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의 崇母는 又音字인 ‘寨’을 제외하고는 ‘ㄷ’으로, 心母·生母는 ‘ㅅ’으로, 禪母는 ‘ㅆ’으로, 從母는 ‘ㄸ’으로, 章母·莊母·精母·澄母는 ‘ㄷ’으로 대응 관계를 보이지만, 『訓蒙字會』에서는 일괄적으로 ‘ㄷ’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東國正韻』 23字母는 『廣韻』 41聲類의 四聲七音を 반영하였지만, 『訓蒙字會』에서는 七音은 반영하였고, 淸·濁音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訓蒙字會』에서는 우리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표10>에서 章母·精母·莊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東國正韻』에서 대개 ‘ㄷ’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ㄷ’으로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실제 어음의 ‘ㄷ’과 ‘ㄷ’이 섞여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ㄷ’은 『全韻玉篇』의 正音과 又音字인 ‘筴’을 제외하고는 ‘ㄷ’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漢語의 치조 파찰음 /ts/와 /tʃ/가 한국어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漢語의 치조 파찰음 /ts/와 /tʃ/가 舌尖前音에 해당하여, 齒音에 가깝지만, 한국어에서의 ‘ㄷ’과 ‘ㄷ’은 경구개 파찰음에 가까워 漢語의 齒音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全濁字 從母의 측성은 『訓蒙字會』에서는 대부분 ‘ㄸ’으로 반영되지만, ‘晴’, ‘樵’, ‘樵’, ‘叢’, ‘鏗’, ‘齏’, ‘泉’은 예외적으로 평성 ‘ㄷ’으로 반영된다.

6) 徹母(舌上音)

<표11> 徹母(舌上音) *『東國正韻』의 呑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麤	徹		치(器皿)		丑知	止開三平支徹次清	tʰje		tɕʰɿ¹
煤*	徹	ㅈ	잡(雜語)	잡	丑輒	咸開三入葉徹次清	tʰjæp		tɕa²
椿	徹	튼	춘(樹木)	춘	丑倫	臻合三平諄徹次清	tʰjuen	tɕʰiuən	tɕʰuən¹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徹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次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경구개 파열음 /t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ɕʰ/이다.

셋째, 『訓蒙字會』에서는 徹母에 해당 글자들은 次淸字 ‘ㄸ’으로 표기된다.

넷째, 『東國正韻』에서 徹母는 又音字가 아닌 경우 ‘ㄷ’으로 표기되어 四聲七音を 지키고 있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일률적으로 ‘ㄸ’에 대응된다. 『中原音韻』에서도 徹母는 파열음이 아닌 파찰음으로 추정되는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의 ‘ㄸ’ 표기가 우리 한자음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북방음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舌上音이 파찰음이므로 표기상 舌音에 속하지만, 청취 측면에서는 齒音과 가까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麤’는 漢語 中古音에서 徹母로 董同龢 추정음은 경구개 파열음 /tʰ/에 속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ㄸ’으로 표기하고 있다. ‘椿’은 『東國正韻』에서 ‘ㄷ’으로 표기되고, 『訓蒙字會』에서는 ‘ㄸ’으로 표기된다. ‘麤’와 ‘椿’은 평성으로 董同龢의 추정음에 따르면 모두 유기음으로 재구되는데, 『訓蒙字會』에서 ‘ㄸ’으로 표기한 것은 구개음화 규칙과 연관이 있다. 반면, ‘煤’은 비록 又音字이지만, 모음 /-i/나 활음 /-j/가 아닌 모음 ‘ㅏ’ 앞에서 舌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이 『東國正韻』에서 ‘ㄸ’으로, 『訓蒙字會』에서는 ‘ㄸ’으로 표기된다. 훈민정음의 中聲字만을 참고했을 때, 舌上音이 齒音인 ‘ㄸ’으로 변한 것에서 구개음화 규칙은 찾아볼 수 없지만, 董同龢의 재구음을 참조했을 때, 활음 /-j/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煤’은 入聲字로 무기음으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中古音이 近代 漢語音으로 넘어가는 현상과 일치한다.¹⁷⁾

7) 從母(齒頭音)

<표12> 從母(齒頭音) *『東國正韻』의 慈母(ㄸ, ㄴ)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賊	從	·적	적(人類)	적, 적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ək	tsei	tsei²
昨	從	·작	작(雜語)	작	在各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ak		tsuo²
情	從	·평	정(身體)	정	疾盈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eŋ	tsʰiəŋ	tcʰiŋ²
籍	從	·적	적(雜語)	적	秦昔	梗開三入昔從全濁	dzʰjek		tcɿ²
蜻	從	·평	제(昆蟲)	제	徂奚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ei		tcʰi³
坐	從	·좌, ·좌	좌(雜語)	좌	徂果	果合一上果從全濁	dzʰua	tsuo	tsuo⁴
祚	從	·중	조(雜語)	조	昨誤	遇合一去暮從全濁	dzʰuo	tsu	tsuo⁴
蹲	從	·존, ·존, ·춘	준(雜語)	준	徂尊	臻合一平魂從全濁	dzʰuən	tsʰuən	tuən¹
族	從	·족, ·출	족(天倫)	족, 주	昨木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tsu	tsu²
罪	從		죄(雜語)	죄	徂賄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tsui	tsuei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從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一·三·四等, 合口 一等으로, 모두 全濁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dz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s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從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濁字 ‘ㄸ’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從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ㄸ’으로 표기되고, 65字로 전체의 9%의 비중을 차지한다. 『訓蒙字會』에서 『東國正韻』의 全濁字 ‘ㄸ’을 일률적으로 ‘ㄸ’으로 표기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쉽게 보면, 단순히 全濁의 표기를 하지 않고 ‘ㄸ’으로 표기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나, 各自並書 ‘ㄱ’, ‘ㄷ’, ‘ㅌ’, ‘ㅍ’, ‘ㅍ’, ‘ㅎ’

17) 『訓蒙字會』(1527)나 『新增類合』(1576)과 같은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똑같이 /ㄷ, ㅌ/으로 실현되던 설음들이 구개음화에 있어서는 위 음운 환경에서 동일하게 /ㄸ, ㅌ/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설상음에서 먼저 구개음화를 보이고 난 이후에 설두음에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로 논의되어 왔다. 구개음화에 있어서 설상음과 설두음의 이런 구별은 고유어와는 다른 한자음만의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 한국한자음의 구개음화는 고유어와의 관계 못지않게 설상음만 정치음으로 합류한 중국 한자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諺簡에 나타난 한자음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가 살펴본 16세기 후기 자료에서부터 고유어 및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관찰되었는데,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있어서는 설상음과 설두음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설상음과 설두음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양상은 16세기 인간에서부터 17,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인간에 모두 평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구개음화가 급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개음화형과 비구개음화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자마다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서 구개음화 규칙의 전파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준환, 「설음계 한자음의 구개음화 인간 한자음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34권, 한국어학회, 2007, pp.303-304.

의 체계 안에서 살펴봤을 때, ‘ㄷ’은 ‘ㄸ’으로, ‘ㅌ’은 ‘ㅍ’으로의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東國正韻』에서 ‘ㄷ’은 파찰음 혹은 유성 마찰음의 濁한 소리를 표기하고, ‘ㄸ’은 파찰음 혹은 유성 마찰음의 淸한 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訓蒙字會』에서 全濁字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자음에서 濁한 소리가 우리 한자음에서는 변별 자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마찬가지로 『東國正韻』에서 ‘ㅌ’은 무성 마찰음의 濁한 소리를 표기하고, ‘ㅍ’은 무성 마찰음의 淸한 소리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면, 『東國正韻』에서 ‘ㅌ’을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ㅍ’으로 표기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東國正韻』에서 ‘ㅌ’은 우리 한자음의 初聲을 표기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한자음에 濁音이 없어 四聲七音의 체계에 맞추기 위해 濁音 표기를 한 것이다.¹⁹⁾ 이와 관련하여 淸한 소리와 濁한 소리가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이 되는 것은 현재 중국 粵語 및 일부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崇母(正齒 二等), 船母(正齒 三等)

<표13> 崇母(正齒 二等) *『東國正韻』의 慈母(ㄷ, ㄸ)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筵	崇	·삽, ·섭	삽(器皿)	삽	士洽	咸開二入洽崇全濁	dʒʰep		tʂa²
豺	崇	·쟁	식(獸畜)	지俗식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ʰei	tʂʰai	tʂʰai²
柴	崇	·중, ·쟁, ·쟁	식(雜語)	지俗식	士佳	蟹開二平佳崇全濁	dʒʰæi	tʂʰai	tʂʰai²
巢	崇	·쑤, ·쑤	소(雜語)	초正소	七稍	效開二去效崇全濁	dʒʰau	tʂʰau	tʂʰau⁴
巢	崇	·쑤, ·쑤	소(雜語)	초正소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tʂʰau	tʂʰau²
鋤	崇	·중	서(器皿)	조俗서	士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tʂʰu	tʂʰu²
士	崇	·쌍	수(人類)	수	鉏里	止開三上止崇全濁	dʒʰi	ʂi	ʂi⁴
柿	崇		시(菓實)	시	鉏里	止開三上止崇全濁	dʒʰi	ʂi	ʂi⁴
牀	崇	·쌍	상(器皿)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aŋ		tʂʰuaŋ²

18) 『東國正韻』序文에서는 ‘우리나라 어음도 그 청탁이 구별됨은 중국의 자음과 다를 바가 없거늘, 우리나라 한자음에 있어서만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p.216.

19) 『東國正韻』序文에서는 ‘한편으로 속습을 채집하고 널리 전적을 상고하여 널리 쓰는 음을 근본으로 삼고, 고운(古韻)의 반절에 맞도록 하며, 자모, 칠음, 청탁, 사성 등에 걸쳐 그 본말을 밝히지 않음이 없도록 해서 그 올바른 것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었다. (중략) 청과 탁은 음양의 유(무리)로서 천지의 도이며, 사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는 신의 조화가 나타난 것으로서 사시(四時)의 운행이다. 천지의 도가 어지러워지면 음양이 그 자리를 바꾸고, 사시의 운행이 어지러워지면 조화가 그 차례를 잃게 되니 지극하구나, 성음의 묘함이어! (성음은) 저 음양의 중심이 되고, 조화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로구나.’라고 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pp.218-219.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崇母 계열의 글자들은 모두 開口 二·三等의 글자로 모두 全濁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dʒ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ʂʰ/과 경구개 마찰음 /ʂ/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各自並書 ‘ㄷ’, ‘ㅌ’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ㅌ’으로 표기되고, 9字로 전체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崇母 正齒 二等的 글자들은 『東國正韻』의 기준으로는 ‘ㄷ’, ‘ㅌ’²⁰⁾으로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를 표기하고 있는데, 『訓蒙字會』에서는 모두 全清 계열의 ‘ㅌ’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訓蒙字會』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清·濁音を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¹⁾

여섯째, 崇母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dʒʰ/으로 유성음인데, 『廣韻』 41聲類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東國正韻』에서 ‘ㄷ’과 ‘ㄷ’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全濁字가 곧 유성음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ㄷ’과 ‘ㅌ’이 모두 유성음이라면, 漢語 中古音에서의 邪母를 『東國正韻』에서 ‘ㅌ’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는 일괄적으로 ‘ㄷ’은 ‘ㅌ’으로, ‘ㅌ’은 ‘ㅌ’으로 반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는 곧 유성음이라 전제되었지만,²²⁾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를 음소 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訓蒙字會』를 면밀히 고찰해 봤을 때,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는 유성음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논거가 될 수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漢語 中古音에서 유성음으로 표기되는 ‘崇’, ‘牀’, ‘神’,

20) ㄷ>ㅌ 과정을 각 세기별로 비교해보면, 주로 ㅌ 어휘 ‘쓰-(書)’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가운데 16세기에 대부분이 ㅌ형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ㅌ형은 1)음가상으로는 ㅌ형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표기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2)동남 방언의 실제 음가를 반영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판본 자료의 경우 두 가지 성격의 ㅌ형이 다 확인된 반면, 한글 편지 자료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후자의 경우만 확인되었다. 17세기 역시 병서자 ㅌ 표기는 ㅌ형이 중심이 된 가운데 판본과 한글 편지 자료 모두 실제 음가를 반영한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18세기부터는 ㅌ형이 한글 편지 자료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미 상당히 세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ㅌ형이라는 또 다른 표기형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황은영, 「한글 편지의 ㅌ표기 변화 고찰」, 『언어학연구』, 제17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0, p.329.

21) 董同龢의 「中古音과 近代音의 聲母 對照表」에 따르면, 『東國正韻』에서 ‘ㅌ’에 해당하는 中古 崇母는 深攝, 梗攝, 曾攝, 通攝, 入聲을 제외한 仄聲 글자들이 現代音에서 치조 파찰음 [tʂʰ]와 마찰음 [ʂ]로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684字에 있어서는 해당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22) 본고에서는 淸音과 濁音의 존재를 국제음성기호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중국어의 吳方言 지역 등에 남아 있는 淸音과 濁音의 자질로 분석하고 있다.

‘船’, ‘邪’, ‘禪’이 『訓蒙字會』에서 대체로 무성 마찰음 계열인 ‘ㅅ’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全濁字는 곧 유성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표14> 船母(正齒 三等) *『東國正韻』의 慈母(ㄷ, ㄴ)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廣韻)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麝	船	·쌍	샤(獸畜)	샤	神夜	假開三去禡船全濁	dzʰja	ɕie	ɕy ⁴
舌	船	·쌍	설(身體)	설	食列	山開三入薛船全濁	dzʰjæt	ɕie	ɕy ²
菰	船	·심	심(菓實)	심	食荏	深開三上寢船全濁	dzʰjem		ɕən ⁴
杼	船	·명	셔(雜語)	셔, 저	神與	遇開三上語船全濁	dzʰjo		ɕu ¹
繩	船	응, 쌍	승(器皿)	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zʰjəŋ	ɕiəŋ	ɕəŋ ²
晨	船	·씬	신(天文)	신	食鄰	臻開三平真船全濁	dzʰjen	tɕʰiən	tɕʰən ²
船	船	·뽕	선(舟船)	전正선	食川	山合三平仙船全濁	dzʰjuæn	tɕʰiuən	tɕʰuən ²
楫	船	·툼, 쏘	쑤(宮宅)	쑤	食尹	臻合三上準船全濁	dzʰjuen		ɕuən ³
脣	船	·쑤	쑤(身體)	쑤	食倫	臻合三平諄船全濁	dzʰjuen		tɕʰuən ²
盾	船	·뽕, 쏘	쑤(軍將)	쑤, 둔	食尹	臻合三上準船全濁	dzʰjuen	ɕiuən	tuən 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船母 계열의 글자들은 ‘船’, ‘楫’, ‘脣’, ‘盾’이 合口 三等인 것을 제외하면, 開口 三等에 속하며, 해당 글자들은 모두 全濁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dz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tɕʰ/과 경구개 마찰음 /ɕ/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船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杼’를 제외하고 全濁字 ‘ㅅ’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船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ㅅ’으로 표기되고, 20字로 전체의 3%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廣韻』 41聲類의 船母 正齒 三等的 글자들은 일률적으로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船母의 추정음은 경구개 파찰음 /dzʰ/로 유성음인데, 『東國正韻』에서 ‘ㅅ’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무성 마찰음인지 유성음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船母가 『訓蒙字會』에서 무성 마찰음 계열인 ‘ㅅ’으로 표기되는 것은 全濁字가 곧 유성음이라고 결론지었던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물론 『訓蒙字會』의 ‘ㅅ’의 표기는 『中原音韻』의 음계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북방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무엇보다 『訓蒙字會』에서 ‘ㅅ’이 『東國正韻』에서 ‘ㅅ’과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東國正韻』에서 ‘ㅅ’은 漢語 中古音의 全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東國正韻』의 序文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한자음에 대

해 비교·고찰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곱째, 『東國正韻』에서는 무성 마찰음이든 유성음이든 全濁字를 ‘ㅅ’으로 표기하고 있어 濁音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訓蒙字會』에서는 各自並書 ‘ㅅ’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漢語 中古音의 清·濁音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15> 其他聲母²³⁾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보통화
						廣韻 (1008)	董同龢		
棧*	崇	·잔, ·짚, ·짚	잔(雜語)	잔	士諫	山開二去諫崇全濁	dʒʰan	tʃan	tʃan ⁴
煤*	崇	·잡	잡(雜語)	잡	士洽	咸開二入洽崇全濁	dʒʰep		tʃa ²
儕*	崇	·쟁	제(雜語)	지俗제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ʰei	tʃai	tʃʰai ²
棧*	崇	·잔, ·짚, ·짚	잔(雜語)	잔	士免	山開三上獮崇全濁	dʒʰjæn	tʃan	tʃan ⁴
樛*	崇		중(樹木)		鋤針	深開三平侵崇全濁	dʒʰjem		tʃʰan ²
妯*	禪	·작	작(人類)	작	市若	宕開三入藥禪全濁	ʒjak		ʒuo ⁴
茅*	澄	·성, 영	셔(菓實)	모	直呂	遇開三上語澄全濁	ɟʰjo		tʃu ⁴
植*	澄	·식, ·땡	식(雜語)	치, 식	直吏	止開三去志澄全濁	ɟʰi		tʃɪ ²
芍*	匣	·작, ·착, ·덕, ·돌	삭(花品)	도	胡了	效開四上篠匣全濁	ɣicu	ɣiau	ɣiau ⁴
舌*	匣	·쌈	설(身體)	설	下刮	山合二入鐸匣全濁	ɣuat	ɣɛ	kua ⁴

첫째, <표15>의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가 『東國正韻』에서는 ‘ㅅ’으로 나타나는데, 『訓蒙字會』에서는 ‘ㅈ’으로 표기되고, 『全韻玉篇』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禪母는 『東國正韻』에서는 ‘ㅈ’과 ‘ㅅ’으로 섞여 있는데, 『訓蒙字會』에서는 ‘ㅈ’으로 나타나고 『全韻玉篇』에서는 다시 ‘ㅈ’과 ‘ㅅ’으로 나뉘어진다.

셋째, 董同龢의 <中古音과 近代音의 聲母 對照表>²⁴⁾에 따르면, 崇母는 莊系에 속하고, 船母는 章系에 속하는데, 측성에서 /ʃ/로 발음된다.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ㅈ’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넷째, 董同龢의 <中古音과 近代音의 聲母 對照表>에 따르면, 匣母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近代音에서 파찰음과 마찰음으로 혼용됨을 알 수 있는데, 『訓蒙字會』에서도 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9) 心母(齒頭音)

23) <표15>에서는 徹母, 從母, 崇母, 船母와 관련이 없는 又音字만을 제시한다.

24) 董同龢 著, 公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pp.218-219.

<표16> 心母(齒頭音) *『東國正韻』의 戌母(ㄱ)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嗽	心	·삭, ·술	수(疾病)	수, 삭	蘇奏	流開一去候心全清	su	səu	sou ⁴
索	心	·삭, ·삭	삭(器皿)	삭, 식	山責	梗開二入麥心全清	ʃæk	sau	suo ³
瀉	心	·상, ·상	샤(疾病)	샤	司夜	假開三去禡心全清	sja	sie	cie ⁴
猩	心	싱	성(獸畜)	싱, 성	桑經	梗開四平青心全清	sierŋ	səŋ	ciŋ ¹
銓	心	싱	싱(雜語)	싱	桑經	梗開四平青心全清	sierŋ		səŋ ¹
梭	心	상	사(器皿)	사	蘇禾	果合一平戈心全清	sua	suɔ	suo ¹
酸	心	산	산(雜語)	산	素官	山合一平桓心全清	suən	suɔn	suan ¹
葳	心	세	세(天文)	세	相銳	蟹合三去祭心全清	sjuæi	sui	suei ⁴
莢	心	성	쑤(蔬菜)	쑤俗유	息遺	止合三平脂心全清	sjuiei	sui	suei ¹
苟	心	순	순(蔬菜)	순	相倫	臻合三平諄心全清	sjuen	siuən	cyn ²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心母 계열의 글자들은 ㅅㅁ 二·四等の 글자를 제외한 開合의 모든 等の 글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일률적으로 무성 마찰음 /s/이고,²⁵⁾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무성 마찰음 /s/와 경구개 마찰음 /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心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清字 ‘ㄱ’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心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ㅅ’으로 표기되고, 118字로 전체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唇			幫 p	滂 p'	並 p'	p	明 m			
輕唇			非 f	敷 f	奉 f		微 ø(u)			
舌頭(娘併入,來附)			端 t	透 t'	定 t'	t	泥(娘)來 l			
舌上	梗入二等讀音	知 ts	徹 ts'		ts					
		其他	知 ts	徹 ts'	澄 ts'	ts				
齒頭	洪音	精 ts	清 ts'	從 ts'	ts					
	細音	精 tc	清tc'	從tc'	tc					
正齒 附半齒	莊系	深及梗 曾通入	莊 ts	初 ts'	崇	ts				
		其他	莊 ts	初 ts'	崇 ts'	ts,ʃ				
	章系	止 開	章 ts	昌 ts'	船 ts ,ʃ	ʃ	日 ø			
		其他					日 z			
牙曉 匣移此	開口	洪音	見 k	溪 k'		疑 ø	曉 x	匣 x		
		細音	三等	見 tc	溪tc'	羣 tc'	tc	疑 n,ø(i)	曉 ɕ	匣 ɕ
			其他	見 tc	溪tc'			疑 ø(i)	曉 ɕ	匣 ɕ
	合口	洪音	見 k	溪 k'	羣 k'	k	疑 ø(u)	曉 x	匣 x	
細音		見 tc	溪tc'	羣tc'	tc	疑 ø(y)	曉 ɕ	匣 ɕ		
喉	開口	洪音	影 ø							
		細音	影ø(i)				云,以 ø()			
	合口	洪音	影ø(u)				云,以 ø(u)			
		細音	影ø(y)				云,以 ø(y)			

25) ‘索’은 /s/로 추정되어 예외자로 볼 수 있다.

의 17%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心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東國正韻』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生母(正齒 二等), 書母(正齒 三等)

<표17> 生母(正齒 二等)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鯨	生	상	사(鱗介)	사	所加	假開二平麻生全清	ja	sa	sa ¹
槩	生	·삭	삭(軍將)	삭	所角	江開二入覺生全清	ɟɔk		ɟuo ⁴
銑	生	싱	싱(雜語)	싱	所庚	梗開二平庚生全清	ɟeŋ		ɟeŋ ¹
山	生	산	산(地理)	산	所間	山開二平山生全清	ɟæn	san	san ¹
筭	生	술	쇼(器皿)	쇼	所交	效開二平肴生全清	ɟau	sau	sau ¹
瘦	生	·술	수(疾病)	수	所祐	流開三去宥生全清	ɟju	seu	seu ⁴
師	生	·승	스(儒學)	스	疎夷	止開三平脂生全清	ɟjei	si	si ¹
刷	生	·숄, ·열	쇼(器皿)	찰	數刮	山合二入鐸生全清	ɟuat	sua	sua ¹
帥	生	·숄, ·형, ·헝	슈(人類)	슈, 술	所類	止合三去至生全清	ɟjuei	suai	suai ⁴
蟀	生	·숄	술(昆蟲)	술正술	所律	臻合三入質生全清	ɟjuet		sui ⁴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生母 계열의 글자들은 ㅅ口 二·三等에 속하는 글자들을 제외하고, 開口 二·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ㄅ’을 제외하고 모두 치조후 마찰음 /ɟ/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마찰음 /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生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淸字 ‘ㅅ’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生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ㅅ’으로 표기되고, 72字로 전체의 11%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ㅅ’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東國正韻』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8> 書母(正齒 三等)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聖	書	·성	·성(雜語)	성	式正	梗開三去勁書全清	ɟjeŋ	ɟieŋ	ɟeŋ ⁴
獸	書	·술	슈(雜語)	슈	舒救	流開三去宥書全清	ɟju	ɟieu	seu ⁴
扇	書	·선, ·션	션(器皿)	션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清	ɟjæn	ɟien	san ¹
蟀	書		셔(昆蟲)		舒呂	遇開三上語書全清	ɟjo		su ³

豕	書	:싱	시(獸畜)	시	施是	止開三上紙書全清	cje	ʃi	ʃɪ ³
紳	書	신	신(腹飾)	신	失人	臻開三平真書全清	cjen	ʃian	ʃən ¹
水	書	:싱	슈(雜語)	슈	式軌	止合三上旨書全清	cjuei	ʃui	ʃuei ³
薜	書	:순	순(花品)	순	舒閏	臻合三去稕書全清	cjuen		ʃuən ⁴
菽	書	:숙	숙(禾穀)	숙	式竹	通合三入屋書全清	cjuk	ʃu	ʃu ¹
春	書	송	송(雜語)	송俗용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cjuonj	tʃʰiunj	tʃʰuŋ ¹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書母 계열의 글자들은 대부분 開口·合口 三等으로 모두 全淸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치조후 마찰음 /c/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마찰음 /ʃ/와 경구개 파찰음 /tʃ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書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淸字 ‘ㅅ’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書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ㅅ’으로 표기되고, 52字로 전체의 8%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ㅅ’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東國正韻』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其他聲母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廣韻)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苟*	知	·작, ·착, ·덕, ·돌	삭(花品)	도 ²⁶⁾	張略	宕開三入藥知全淸	tjak	ʃiau	ʃau ²
椹*	知	·뎡	심(器皿)	침, 심	知林	深開三平侵知全淸	tjem	tʃiam	tʃən ¹
氏*	章	·징, ·성	시(天倫)	지, 시	章移	止開三平支章全淸	tɕje	tʃi	tʃɪ ¹
娠*	章	·진, ·신	신(天倫)	·신	章刃	臻開三去震章全淸	tɕjen	tʃʰian	ʃən ¹
沼*	章	·쥬	쇼(地理)	조俗쇼	之少	效開三上小章全淸	tɕjæu	tʃiau	tʃau ³
蟪*	章	·썸	섬(昆蟲)	·섬	職廉	咸開三平鹽章全淸	tɕjæm	tʃʰiem	tʃʰan ²
氏*	精	·징, ·성	시(天倫)	지, 시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淸	tsjerj		tɕin ¹
氏*	精	·징, ·성	시(天倫)	지, 시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淸	tsjerj		tɕin ¹
餽*	精	·쥬	산(食饌)	쥬, 산	子峻	臻合三去稕精全淸	tsjuen		tɕyn ⁴
鎗*	初	·찬, ·찬, ·산	산(器皿)	찬正산	初膺	山開二去諫初次淸	tʃʰan	tʃʰan	tʃʰan ³
鎗*	初	·찬, ·찬, ·산	산(器皿)	찬正산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淸	tʃʰæn	tʃʰan	tʃʰan ³
鍾*	初	·참	삼(器皿)	·삼	楚洽	咸開二入洽初次淸	tʃʰep	tʃʰa	tʃʰa ¹
絮*	徹	·텅, ·성, ·성	셔(腹飾)	여, 셔, 처	抽據	遇開三去御徹次淸	tʃʰjo	siu	tʃʰu ⁴
鍾*	徹	·참	삼(器皿)	·삼	丑輒	咸開三入葉徹次淸	tʃʰjæp	tʃʰa	tʃʰa ¹
鍾*	徹	·참	삼(器皿)	·삼	丑輒	咸開三入葉徹次淸	tʃʰjæp	tʃʰa	tʃʰa ¹
楯*	徹	·툰, ·쥬	순(宮宅)	·순	丑倫	臻合三平諄徹次淸	tʃʰjuen		tʃʰuən ¹
苟*	清	·작, ·착, ·덕, ·돌	삭(花品)	·도	七雀	宕開三入藥清次淸	tʃʰjak	ʃiau	tɕʰye ⁴
鳥	清		석(腹飾)	·석	七約	宕開三入藥清次淸			tʃʰiak ³
焯*	清	·청	슈(雜語)	채正슈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淸	tʃʰuAi	tʃʰui	tʃʰuei ⁴
幌*	清	·슌, ·성, ·형	세(腹飾)	·세	此芮	蟹合三去祭清次淸	tʃʰjuæi		ʃuei ⁴
氣*	溪	·קי	의 ²⁷⁾ (天倫)	·기	去既	止開三去未溪次淸	kʰjɛi	ki	tɕʰi ⁴
渣*	莊		사(雜語)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淸	tʃa		tʃa ¹
絮*	息	·텅, ·성, ·성	셔(腹飾)	여, 셔, 처	息據	遇開三去御心全淸	sjo	siu	ɕy ⁴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廣韻)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燹*	曉	·선, ·형	선(雜語)	희, 선	許位	止合三去至曉次清	xjuëi		cian ³
君*	見	군	군(人類)	군	舉云	臻合三平文見全清	kjuæn	kiuæn	tɕyn ¹
楔*	見	·설	설(器皿)	설	古黠	山開二入黠見全清	kæt		cie ¹
薑*	見	강	강(蔬采)	강	居良	宕開三平陽見全清	kjaŋ	kiaŋ	tɕiaŋ ¹
衰*	見		사(器皿)	곤	古本	臻合一上混見全清	kuæn		kuæn ³

첫째, 『東國正韻』에서 일부 又音字들은 漢語 中古音의 知母는 ‘ㄷ’으로, 章母·精母는 ‘ㅈ’으로, 初母·徹母·淸母는 ‘ㅊ’으로 대응되고, 溪母는 ‘ㅋ’으로, 息母는 ‘ㅍ’으로, 曉母는 ‘ㅎ’으로, 見母는 ‘ㄱ’으로 대응된다. 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일률적으로 ‘ㅅ’으로 표기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현실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董同龢의 <中古音과 近代音의 聲母 對照表>에 따르면, 曉母·見母·溪母의 三等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近代音에서 파찰음과 마찰음으로 혼용된다. 『訓蒙字會』에서도 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ㄱ’은 漢語 中古音에서 舌上音 知母와 淸母에 속하는데, 『東國正韻』에서는 知母와 淸母를 ‘작, ·작, ·덕, ·똥’로 표기하고 있다.

11) 邪母(齒頭音)

<표20> 邪母(齒頭音) *『東國正韻』의 邪母(ㄴ)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廣韻)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席	邪	·석	석(器皿)	석	祥易	梗開三入昔邪全濁	zjek	si	ɕi ²
袖	邪	·쉴	쉴(腹飾)	쉴	似祐	流開三去宥邪全濁	zju	siəu	ɕiou ⁴
序	邪	·성	서(儒學)	서	徐呂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siu	ɕy ⁴
飼	邪		스(雜語)	스	祥吏	止開三去志邪全濁	zi	si	si ⁴
燼	邪	·신	신(雜語)	신	徐刃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siæn	tɕin ⁴
象	邪	·쌍	상(獸畜)	상	徐兩	宕開三上養邪全濁	zjaŋ	siaŋ	ɕiaŋ ⁴
旋	邪	·똥, ·똥	선(雜語)	선	似宣	山合三平仙邪全濁	zjuæn	siuæn	ɕyan ²
縫	邪	·쌍	쉴(腹飾)	쉴	徐醉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sui	suei ⁴
楯	邪	·툼, ·툼	순(宮宅)	순	詳遵	臻合三平諄邪全濁	zjuen		ɕuan ³
松	邪	·송	송(樹木)	송	祥容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siuŋ	suŋ ¹

26) 『全韻玉篇』에서는 ‘ㄱ’의 入聲字들 찾을 수 없다.

27) 본고에서는 合用並書 ‘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첫째, 『訓蒙字會』를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邪母 계열의 글자들은 開口 三等,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유성 마찰음 /z/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무성 마찰음 /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邪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濁字 ‘ㅅ’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邪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全清字 ‘ㅅ’으로 표기되고, 34자로 전체의 5%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일률적으로 全濁字를 표기하는데 사용된 ‘ㅅ’이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全清字 ‘ㅅ’으로 표기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董同龢의 추정음은 /z/인데, 『東國正韻』이 漢語 中古音을 일부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ㅅ’의 음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다고 평가받는 『訓蒙字會』에서 ‘ㅅ’은 ‘ㅅ’으로 반영되므로, 적어도 우리 현실 한자음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는 유성음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ㅅ’은 중세 국어에서 /s/, /ʃ/, /ɕ/ 중 어느 음에 가까운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무성 마찰음 계열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四聲通解』의 齒音에서 漢語 近代音 표기를 위해,²⁸⁾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고, 全濁字는 『洪武正韻譯訓』의 방식대로 各自並書 ‘ㅅ’·‘ㅅ’, ‘ㅅ’·‘ㅅ’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만약 ‘ㅅ’·‘ㅅ’이 유성 마찰음 /z/라면, 『四聲通解』에서 중국 북방 近代音의 全濁 邪母·禪母를 ‘ㅅ’·‘ㅅ’으로 표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四聲通解』에서 『洪武正韻譯訓』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ㅅ’·‘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東國正韻』의 全濁 ‘ㅅ’이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에서 ‘ㅅ’으로 표기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東國正韻』에서 全清 ‘ㅅ(戌母)’과 全濁 ‘ㅅ(邪母·禪母)’은 그 추정음과는 별개로 우리 현실 한자음에서 무성 마찰음으로, 『東國正韻』에서 全濁 ‘ㅅ’이 유성 마찰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의 저자인 최세진이 무성 마찰음을 표기하기 위해, 『四聲通解』에서 ‘ㅅ’·‘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곱째, 邪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董同龢의 추정음으로 /z/이다. 중국에서는 吳方言 및 일부 湘方言에서 清·濁音의 무·유성 대립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국가의 한자음 중 일본에서도 清·濁音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데, 齒音에서는 /s/와 /z/로 실현된다.²⁹⁾ 『唐話纂要』³⁰⁾에는 1716년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의 당통사들이 사용했던 일본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訓蒙字會』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대 일본 한자음에서는 清·濁音의 대비가 무·유성으로 뚜렷이

28) 본고에서의 近代音은 董同龢의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中原音韻』에 반영된 어음을 가리킨다.

29) 이 표는 일본어의 清·濁音이 『唐話纂要』에 반영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邪母는 濁音이 없는 한국에서는 ‘ㅅ’으로 발음된다.³¹⁾ 粵方言에서도 濁音은 /z/가 아닌 /s/로 발음되는데, 粵方言에서 濁音의 淸音化가 일률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대신 粵方言에서 淸音은 陰調로, 濁音은 陽調로 명확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東國正韻』에서 보이는 淸·濁音의 음소 표기와 대응된다. 따라서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의 자질은 중국 일부 남방 방언에서 보이는 陰·陽調와의 자질과 비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吳方言 및 일부 湘方言, 일본 한자음과 마찬가지로 粵方言 및 우리 한자음에서도 漢語 中古音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한자음 및 粵方言에서 濁音의 淸音化가 일률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粵方言에는 漢語 中古音의 四聲(平上去入)이 현재까지도 잘 지켜져 平上去의 운미 /-m/, /-n/, /-ŋ/이 입성에서 /-p/, /-t/, /-k/로 여전히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음성은 /-i/, /-u/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漢語 中古音 운미 8 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粵方言에서 濁音의 淸音化가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2) 禪母(正齒 三等)

<표21> 禪母(正齒 三等) *『東國正韻』의 邪母(ㄴ)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反切	中古音		普通話	唐話纂要	
						廣韻	董同龢		가나	大辭林
誰	禪	췌	슈	슈	視佳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ʃuei ²	ジユイ	ɕi-jui-i
善	禪	:선, 선	선		常演	山開三上獮禪全濁	zjæn	ʃæn ⁴	ゼン	dze-n
盛 ⁺	禪	췌, 췌	췌	췌	承正	梗開三去勁禪全濁	zjeŋ	ʃæŋ ⁴	ジン	ɕi-n
夕	禪	:씩	씩·씩	씩	祥易	梗開三入昔邪全濁	zjek	ei ¹	ヅエ	dzue-we
時	禪	췌	시	시	市之	止開三平之禪全濁	zi	ʃi ²	ズウ	dzue-u
受	禪	:췌	슈	슈	殖西	流開三上有禪全濁	zju	ʃou ⁴	ジウ	ɕi-u
上	禪	:췌, 췌	상	상	時亮	宕開三去漾禪全濁	zjaŋ	ʃaŋ ⁴	ジヤン	ɕi-ja-n

30) 『唐話纂要』는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당통사(唐通事)이자 한학자였던 오카지마 칸잔(岡島冠山)이 저술하여 1716년에 편찬한 한어 교과서이다. 『唐話纂要』는 일본어 표음문자인 카타카나(片仮名)로 모든 한자에 당시 한어의 실제 어음을 표기하였다.

31) 문헌상으로 중자음 [ss]가 언제 경음 [s]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표기는 ‘ㅅ’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ㅅ:ㅅ’의 대립이 없는 경상 방언의 변화를 참고하여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경상 방언의 일부 지역어에서는 17세기경에 ‘ㅅ’이 경음화하여 ‘ㅅ[s]’이 생성되고 일부 지역어에서는 ‘ㅅ’을 유지하여 현대 방언에까지 ‘ㅅ’으로 실현된다고 한다.(천시권 1965, 백두현 1992:293). 그런데 이처럼 일부 경상 방언에서 [s]로 실현되고 나머지 국어 전방언에서 [s]로 실현되는 경우는, 중세어에서 ‘ㅅ’ 표기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ㅅ’이 ‘ㅅ’의 경음화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견해는 왠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鄭仁浩, 「중세어 ‘ㅅ, ㅅ’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제110권, 2010, pp.252-253.

字例	聲母	東國 正韻 (1447)	訓蒙 字會 (1527)	全韻 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 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箴	禪	썩	성(器皿)	성	是征	梗開三平清禪全濁	zjeŋ		tɕʰəŋ ²
十	禪	·십	십(雜語)	십	是執	深開三入緝禪全濁	zjep	ɕi	ɕɪ ²
殖	禪	·식	식(雜語)	식	常職	曾開三入職禪全濁	zjek		tɕɪ ²
臣	禪	신	신(人類)	신	植鄰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tɕʰien	tɕʰən ²
裳	禪	상	상(腹飾)	상	市羊	宕開三平陽禪全濁	zjaŋ	tɕʰiaŋ	tɕʰaŋ ²
蟪	禪	섬	섬(昆蟲)	섬	視占	咸開三平鹽禪全濁	zjæm	tɕʰiem	tɕʰam ²
噬	禪	·쌩	셔(雜語)	셔	時制	蟹開三去祭禪全濁	zjæi	ɕi	ɕɪ ⁴
睢	禪	췌	슈(身體)	슈	視佳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ɕuei ²
醇	禪	췌	순(雜語)	순	常倫	臻合三平諄禪全濁	zjuen	tɕʰiuən	tɕʰuan ²
熟	禪	·숙	숙(雜語)	숙	殊六	通合三入屋禪全濁	zjuk	ɕiu	ɕu ²

첫째, 禪母 계열의 글자들은 合口 三等인 ‘睡’, ‘樹’, ‘鶻’, ‘睢’, ‘醇’, ‘蓐’, ‘塾’, ‘熟’을 제외하면 開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유성 마찰음 /z/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경구개 마찰음 /ɕ/와 경구개 파찰음 /tɕ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해당 글자들은 全濁字 ‘ㅅ’으로 표기된다. 『東國正韻』에서 全濁字를 표기한 것은 漢語 中古音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³²⁾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 편찬자의 관점에서 漢語 中古音의 清·濁音은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무·유성의 대립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訓蒙字會』에서 初聲 ‘ㅅ’에 해당하는 禪母의 글자들은 52字로 전체의 8%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 ‘ㅅ’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일률적으로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 漢語 中古音 41聲類와 『東國正韻』 23字母, 『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東國正韻』 23字母에서 『廣韻』 41聲類의 全濁字 齒頭 邪母, 正齒 三等 禪母에 대응하는 ‘ㅅ’이 『訓蒙字會』에서는 일률적으로 ‘ㅅ’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다.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유성음으로 추정하고 있

32) 『東國正韻』序文에서는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와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는데, 漢語 中古音의 체계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東國正韻』 23字母와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의 한자음 표기를 근거로 했을 때, 全濁字를 국제음성기호에서 규정하는 유성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漢語 中古音의 邪母를 현재 吳方言에서 확인할 수 있는 /z/라 한다면, 『東國正韻』에서 邪母의 표기를 위해, ‘ㅅ’이 아닌 ‘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 『東國正韻』에서 淸·濁音を 구분하지만, 齒音에서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지 않고, 正齒에서 等を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東國正韻』의 편찬 연도는 시기상으로 漢語 中古音과 거리가 있지만,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에서 표기하고 있는 淸·濁音은 적어도 편찬자의 기준에서는 漢語 中古音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東國正韻』의 邪母 ‘ㅅ’의 추정음과 관련하여 다양한 異論이 있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邪母 ‘ㅅ’이 『訓蒙字會』에서 일률적으로 ‘ㅅ’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全濁字는 곧 유성음이라 단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世宗御製訓民正音』 및 『訓蒙字會』에서 ‘ㅅ’은 ‘ㅅ’으로 표기되고, ‘ㅅ’이 무성 마찰음 /s/(ç, ʃ)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異見은 없다.

중국에서도 吳方言 및 일부 湘方言 지역을 제외하고, 全濁 齒音에서 유성 마찰음 /z/로 발음하는 지역은 없다. 吳方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濁音의 淸音化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이 吳方言의 어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吳方言에서 입성의 소실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粵方言에서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齒音의 淸·濁音에서 무·유성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を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무·유성의 대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둘째, 『廣韻』 41聲類의 全淸 舌上 知母와 次淸 舌上 徹母가 『東國正韻』 23字母에서는 각각 全淸 舌音 斗母인 ‘ㄷ’과 次淸 舌音 吞母인 ‘ㅌ’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訓蒙字會』에서는 舌音에 해당하는 한자음 ‘椿·樞’와 ‘麟·椿’이 각각 ‘ㄷ’과 ‘ㄸ’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訓蒙字會』에서도 우리 현실 한자음을 반영함에 있어, 四聲七音이 일부 지켜지지 않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舌頭音은 ‘ㄷ’으로 표기되지만, 舌上音은 ‘ㄸ’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기의 변화가 중국 近代音을 반영한 것인지, 우리 현실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廣韻』 41聲類를 기준으로 『東國正韻』 23字母에서는 輕唇·重唇, 舌頭·舌上, 齒頭·正齒의 分韻을 구분하지 않지만, 淸·濁音은 『廣韻』 41聲類에 정확히 대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訓蒙字會』에서는 輕脣·重脣, 舌頭·舌上, 齒頭·正齒의 分韻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淸·濁音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訓蒙字會』의 한자음은 『東國正韻』 23字母보다는 우리 현실 한자음에 가까운 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을 음소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漢語 中古音에서 정하는 淸·濁音과 관계없이 우리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訓蒙字會』를 비교 연구할 경우, 漢語 中古音에서의 淸·濁音이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무·유성으로의 대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淸·濁音의 표기가 梵語를 漢語로 轉寫하는 것과 관련이 깊으므로, 淸·濁音이 梵語의 무·유성에 잘 대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漢語 中古音의 淸·濁音을 국제음성기호에서 규정하는 무·유성의 대응으로 규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강신향,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227.
-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上 -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언어연구』, 제8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 김민경·김서영·김은희·문성호,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下 -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제8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pp.275-320.
- 나찬연, 『쉽게 읽는 월인석보 서』, 경진출판, 2020.
- 안기섭,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 서·범례상의 성조 인식과 입성 /-k/ /-t/ /-p/운미 탈락 후의 변천 탐구를 위하여」, 『중국인문과학』, 제7집, 중국인문학회, 1988, pp.1 - 97.
- 안기섭,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의 정음,속음 성격의 재고(서, 범례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제10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8, pp.71-103.
- 이기문, 『훈몽자회 연구』, 서울대학출판사, 1971.
- 이돈주, 「全韻玉篇 의 正·俗한자음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30권, 국어학회, 1997, p.4.
- 董同龢 著, 公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 岡嶋冠山, 『唐話纂要』, 增補 出版 出雲寺和泉掾, 所藏 日本國立國語研究所, 1718(享保3年).
- Internet World stats - <https://xiaoxue.iis.sinica.edu.tw/> [2020.06.01.]
- Internet World stats - <http://www.tougokudb.jp/> [2020.06.01.]
- Internet World stats - <https://ko.wikipedia.org/> [2020.06.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語 中古音, 『訓蒙字會』, 『東國正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영문	Chinese Characters, <i>Hun-mong-ja-hoe</i> , <i>Dongguk-Jeongun</i> , <i>Sa-sung-tong-hae</i> , <i>Jeon-un okpyun</i>				
<div>A Research into the Dental Sounds of the Ancient Chinese Language Consonants : Comparison of the Dental Sounds found within <i>Donggukjeongun</i>(東國正韻) and <i>Hunmongjahwae</i>(訓蒙字會)</div> <div>Kim, Seo-Yeong · An, Ying-Shi · Kim, Min-Gyeong</div> <div><p>The ‘Cheongeum(清音)’ which refers to a clear consonant sound and the ‘Takeum(濁音)’ which refers to the voiced sound of the ancient Chinese language consonants are recorded as ‘Eumsomunja(音素文字)’ which means alphabetic – phonemic – writing within the Hunminjeongeum system in the <i>Donggukjeongun</i>(Standard Rhymes of the Eastern States) is a Korean dictionary of rhymes which sets out a standard practice for pronounc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It was compiled between 1446 and 1448 under the instructions of Sejong the Great, and serves as a companion volume to his Hunminjeongeum.). The <i>Hunmongjahwae</i>(A textbook written to teach Chinese characters in 1527 during the Joseon Dynasty’s King Jungjong’s reign.) on the other hand is evaluated as having recorded the most practical Koreanized Chinese character sounds at the time of its writing. If these two written records were to be compared for an in-depth study, a continuous research is essential in deciding whether the Cheongeum and the Takeum related to the articulating method could be defined as voiceless sounds or voiced sounds dictated by the modern phonology based on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IPA).</p><p>As the transcription of the Cheongeum and the Takeum are deeply related to the transfer and copying of the Sanskrit to the Chinese language, it is of course a given that the Cheongeum and the Takeum’s voiced and voiceless sounds of Sanskrit corresponds extremely well but there is a need for a more objective contemplation of whether the articulation method of the Cheongeum and the Takeum can be defined in correspondence with the voiced and voiceless sound of the IPA.</p></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서영 / 金抒映 / Kim, Seo-Yeong			안영실 / 安英實 / An, Ying-Shi	
		김민경 / 金旻敬 / Kim, Min-Gyeong				
	소 속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Em@il	pionas2shrek@naver.com			hideminori@gmail.com	
		alsrud233@hotmail.co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4